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충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6월 1일  
음력 4월 15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87호

## ‘광복 70주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등불을 밝히다



▲ 서울연등회에 참가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등



▲ 부산연등회 준제결인 및 만장등



▲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화기원대법회

### 서울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제122호)

불기2559년 봉축 연등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봉행되었다. 5월 16일 서울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는 불교 충지중을 비롯한 주요종단과 서울 시내 사찰이 동참한 연등회가 봉행되었다. “얼췌 한바탕 신명이 심장을 두드립시다”를 주제로 시작된 어울림마당은 희망의 함성과 웃음으로 가득 찬 화합의 잔치마당을 열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으로 구성된 연희단의 율동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번 연희단 공연은 2년 만에 펼쳐져 불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등 만들기 경연에서는 최우수상에는 조계종 안양 한아름선원이 수상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에서는 충지중 법등 통리원장을 비롯한 주요종단 대표의 관불의식으로 뽐비니 동산에 태자의 몸으로 나투신 아기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모두가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마음의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밝힌 소중한 빛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통을 나누

니 마음은 맑아지고 빛은 더 밝고 투명합니다. 오늘 소중하게 밝힌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길 밝힙니다. 이웃이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생동할 수 있도록 연등을 밝힙니다.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이고 이 땅에 구현하는 불국토입니다.”고 연등 축제의 개최를 선언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우리의 통일은 민족 모두가 함께 정성을 다해야 할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은 통일불사의 지남指南이 될 것이고, 용맹정진의 수행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불자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통일된 번영의 불국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며 온누리에 부처님의 가사가 원만하여 평화가 깃든 맑은 세상이 되기를 서원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의 행진 선언과 함께 봉축연합창단의 축가로 연등제 출발을 알렸다. 불교 충지중은 광복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등과 평화를 만끽하며 어깨춤을 동심 등

실 추는 남녀 입장을 앞세운 서울, 경인 교구 스승 및 교도 500여명과 포항 수인사 ‘수인회’ 교도, 불교충지중 사회복지기관 산하 임직원 등이 동참하여 진언 밀교의 법등을 화려하게 밝혔다. 동국대를 출발하여 동대문,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수많은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 부산 연등회

5월 17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봉행된 ‘2015 부산연등축제’ 봉축연합대법회에는 불교충지중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정인하 전수)는 스승 및 교도 약500여명과 동해중 학교 탁상달 교장선생과 교직원, 학생 300명이 참석하였다. 율동 한마당으로 식전행사를 시작한 연합대법회는, 오후 6시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 충지중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가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개회사, 삼귀의, 발원문, 대회사,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대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2015 부산 연등 축제”는 명실 공히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한

마당이 되었습니다. 이 축제가 부산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며 연등축제를 부산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서원했다. 해군 작전 사령부 군악대를 선두로 부산 봉축위원회 임원단과 내빈들의 행진으로 시작된 연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하여 구 법원 앞을 거쳐 용두산 공원 입구 대청동 사거리로 향했다. 충지중 부산, 경남교구는 교구 및 사원 ‘만장등’을 선두로 준제결인, 아기부처님 탄신, 관세음보살 등 장엄등 행진을 시작했다. 풍물패의 신명나는 우리가락에 맞추어 종자관을 세진 연등을 들고 즉신성불의 염원을 담아 교도들이 뒤를 따랐다. 충지중 부산, 경남 교구 연등행렬은 화향한마당이 펼쳐지는 부산 중구 대청동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충지중은 다음날 지역 유수의 일간지인 국제신문 1면에 연등회를 소개하는 대표 사진으로 장식됐다.

### 평화기원대법회

5월 16일 연등회와 함께 조계종 주최로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

한 기원대회가 봉행되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모시고 열린 무차선 법회는 전국에서 충지중을 포함한 불자 31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화두를 들고 하루에도 천번 만 번 행기면 대지혜와 대안락, 대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며 간화선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과 내팔 대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희생된 영가들께서도 삼독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극락정토에서 안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자승스님의 ‘2015 불교 통일선언’과 하루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 평화 기원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대법회는 한반도 개국 이래 최대의 인원이 야단법석을 연 자리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서울·부산=김종열 기자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행정실장 석동훈 외 교직원 일동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39(명륜동)

교무실 : 051-555-4458

행정실 : 051-556-0281

교장실 : 051-552-0011



# 불기2559년 주요종단 종정 봉축 법어

## 대한불교 조계종

###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시다

사바에 몸을 나투시니 인간세계가 환희에 젖음이요, 이로 좇아 億兆蒼生이 활로를  
찾음이로다. 일곱걸음 걸음마다 蓮華藏世界를 나뚫이요

天上天下唯我獨尊 一切皆苦我當安之라 하시니, 이로 좇아 만 중생이 生死를 다해  
마쳤고

지옥과 천당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고통이 안락으로 변되가 지혜로 돌아가며 사바에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주야로  
빛을 발함이라.

집집마다 문을 나섬에 서울로 통하고, 집집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맞이함이로다. 사바에 瑞光이 처음 깃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날입니다.이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히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가 어둡다 하나 사바 또한 꿈과 환이거늘, 어찌 어둡고 밝음을 논하며,마음을 밝히라 하나 이 마음은 본래로 밝아  
있음인데 어찌 다시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부대중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拂開古佛三千界<불개고불삼천계>요 指出群生一片心<지출군생일편심>이로다.

옛 부처와 삼천세계를 잡아 엮이요, 뭇 중생의 한 조각 마음을 가리켜냄이로다.



조계종 종정 법원 진제

## 한국불교 태고종

###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우리와 부처가 하나의 진리체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상향의 세계는 대 자유, 대 평등, 대  
평화와 화합의 맑고 밝은 현실정도 세계, 즉 부처의 세상이었으나 오늘의 우리는 무지의  
업연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춤추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없이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값지고, 불교발전을 위해 크게 발분서원 (發憤誓願)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력으로 우리 모두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서, 화쟁(和靜)의 마음 길 열어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영위하도록 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이 아님 없음을 인지하고, 항상  
만나는 이웃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부처님 대하듯 하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계이며, 정토세상의 실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태고종 종정 혜초

## 대한불교 천태종

### 부처님 오심은 더욱 빛나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오셨으니 세상이 고혜이기에 부처님의 오심은 더욱 빛납니다.

탐욕과 성냄으로 얼룩진 사바의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한 불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남의 불행을 함께하고 나의 행복을 나누어야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픔을 잠시 잊고 오늘은 우리 모두 환하게 웃으며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진흙 속에서라야 연꽃이 피는 것이니까요.

布施者獲福(보시자획복)이요, 慈心者無怨(자심자무원)이며

爲善者消惡(위선자소악)이고, 離欲者無惱(이욕자무노)나라.

배푸는 이는 복을 받고, 자비로운 이에게 원수는 사라지며

선을 행하면 악업이 녹아지며,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없어지느니라.



천태종 종정 도용

## 대한불교 진각종

### 정도正道의 세상을 열어갑시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공양 예배합시다.

세사世事の 뭇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려 시공時空을 넘어서 나날이 여기 오시는

부처님의 원력에 동참하여 귀명합시다.

부처님은 청정하여 오고감이 자재自在하여 온 법계에 지혜와 자비를 두루 베푸시나

이 땅에는 여전히 아상我相이 물결쳐서 내 것 내 것 분별하여 다툼이 쉬지 않고 옳고 그름 시비是非가 멈추지 못  
하니 부처님의 이타자리의 실천에 참여 합시다.

지상地上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면 하늘의 달이 천강千江에 나타나듯이

중생의 심성에 부처될 꽃 곧 피워서 공익을 내세워서 사리私利를 채우는

비법非法의 관행慣行을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정도正道 사회로 밝혀갑시다.

병고와 가난과 불화의 중생고衆生苦가 사바娑婆의 에토穢土에 널리 가득할 때 진각성존이 진각의 중문을 높이  
세우고 참회하고 심인 밝히는 법문을 베풀어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고 현세를 정화하는 은혜의 세상을 피친 뜻도  
이와 같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화신化身을 나타내어 생령 존중의 말씀을 짐짓 피시켰으니 귀천貴賤이 세상살이  
에 걸림이 없고 빈부가 상생相生하여 공존共存하도록 군생群生이 동체대비의 큰 품을 열어서 온 세상이 밀엄국  
토가 되도록 정진합시다.



진각종 총인 성초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       |       |      |        |
|-------|-------|------|--------|
| 개 천 사 | 강 순 시 | 5/22 | 10,000 |
| 관 성 사 | 황 성 녀 | 4/28 | 10,000 |
|       | 김 병 석 | 4/28 | 10,000 |
|       | 인 선   | 5/21 | 20,000 |
| 기 로   | 대 관   | 5/21 | 10,000 |
|       | 상 지 화 | 5/21 | 10,000 |
|       | 밀 공 정 | 5/21 | 10,000 |
|       | 수 증 원 | 5/21 | 10,000 |
|       | 총 지 화 | 5/21 | 10,000 |
|       | 선 도 원 | 5/21 | 10,000 |
|       | 일 성 혜 | 5/21 | 10,000 |
|       | 사 흥 화 | 5/21 | 10,000 |
|       | 불 멸 심 | 5/21 | 10,000 |
|       | 법 지 원 | 5/21 | 10,000 |
|       | 법 장 화 | 5/21 | 10,000 |
|       | 법 수 원 | 5/21 | 10,000 |
|       | 해 정   | 5/22 | 10,000 |
| 단 음 사 | 법 연 지 | 5/18 | 10,000 |
| 덕 화 사 | 반 야 심 | 5/19 | 20,000 |
| 밀 인 사 | 정 정 희 | 4/29 | 5,000  |

|       |       |      |        |
|-------|-------|------|--------|
|       | 이 혜 성 | 5/7  | 30,000 |
|       | 이 기 상 | 5/11 | 10,000 |
|       | 이 성 수 | 5/11 | 10,000 |
|       | 안 옥 진 | 5/11 | 10,000 |
|       | 박 주 연 | 5/11 | 10,000 |
|       | 이 수 연 | 5/11 | 10,000 |
|       | 이 재 갑 | 5/11 | 20,000 |
| 백 월 사 | 이 갑 진 | 5/21 | 20,000 |
| 벽 룡 사 | 양 지 현 | 5/4  | 10,000 |
|       | 양 정 현 | 5/4  | 10,000 |
| 선 립 사 | 황 귀 석 | 5/8  | 10,000 |
|       | 심 지 장 | 5/18 | 10,000 |
| 수 인 사 | 김 봉 기 | 4/28 | 10,000 |
|       | 무 명 씨 | 5/4  | 10,000 |
|       | 정 순 득 | 5/13 | 10,000 |
| 승 천 사 | 원 봉   | 5/15 | 10,000 |
|       | 지 선 행 | 5/15 | 10,000 |
| 실 보 사 | 이 순 옥 | 5/6  | 10,000 |
|       | 정 경 자 | 4/27 | 10,000 |
|       | 정 우 석 | 5/14 | 10,000 |

|        |       |      |        |
|--------|-------|------|--------|
| 운 천 사  | 무 명 씨 | 5/15 | 1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권 향 덕 | 4/27 | 10,000 |
|        | 김 용 미 | 4/27 | 10,000 |
|        | 이 향 례 | 4/27 | 10,000 |
|        | 하 재 희 | 4/27 | 30,000 |
|        | 이 준 동 | 4/27 | 10,000 |
|        | 이 현 직 | 4/27 | 10,000 |
|        | 서 선 숙 | 4/27 | 10,000 |
|        | 박 문 실 | 4/27 | 10,000 |
|        | 김 지 연 | 4/27 | 10,000 |
|        | 강 경 화 | 4/27 | 10,000 |
|        | 구 미 자 | 4/30 | 10,000 |
|        | 천 소 영 | 5/12 | 10,000 |
|        | 김 지 영 | 5/22 | 10,000 |
| 정 각 사  | 변 순 개 | 5/5  | 10,000 |
|        | 혜 광   | 5/10 | 10,000 |
| 지 인 사  | 지 성   | 5/15 | 10,000 |
|        | 승 효 계 | 5/15 | 10,000 |

|        |       |      |         |
|--------|-------|------|---------|
| 초록어린이집 |       |      |         |
|        | 황 화 성 | 4/27 | 30,000  |
| 총 지 사  | 이 인 성 | 5/7  | 30,000  |
|        | 법 등   | 5/11 | 30,000  |
|        | 백 지 순 | 5/11 | 30,000  |
| 혜 정 사  | 박 종 석 | 5/6  | 20,000  |
|        | 정 은 선 | 5/19 | 10,000  |
|        | 최 영 례 | 5/20 | 10,000  |
| 화 음 사  | 무 명 씨 | 5/4  | 10,000  |
|        | 교도일동  | 5/7  | 140,000 |
| 흥 국 사  | 지 정   | 5/15 | 20,000  |
| 사원명무기재 |       |      |         |
|        | 무 명 씨 | 4/29 | 20,000  |
|        | 김 갑 선 | 5/19 | 10,000  |

###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총지종 전국 서원당 봉축 법요식 봉행

## 사원마다 꽃피운 부처님의 사랑



▲ 일원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무대(총지사)



▲ 천불가를 공양하는 운천사 부림합창단



▲ 봉축제등행진을 하는 만보사 교도들



▲ 봉축법회 후 한자리에 모인 실시사 교도들



▲ 웃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각사 교도들

불교총지종 봉축 법요식이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봉행된 총지사 봉축 법요식은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집공으로 육법 공양, 훈향정공, 대중불사, 종령 법어, 축하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며 일체중생이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 원아 20여명이 출연하여 즐거운 댄스를 선보여 교도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마니합창단(단장 손경옥)은 김은미 보살의 독창과 중창단의 찬불가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총지사 2층 원정 기념관에서서는 교도 자녀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

교도들은 이번 제등 행열에 참가한 평화통일 기원 한반도 등과 어울림 더울림 연등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1층 현관에서는 팝콘과 음료수도 제공했다.

서울 실시사(주교 법우 정사)에서는 약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교도들은 다함께 공양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되새겼다.

대전 만보사(주교 승원 정사)는 오후 7시 영식 천도 불공을 마치고 만보사 인근에서 제등 행진을 했다. 교도들은 법복을 입고 정성껏 준비한 연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 큰 뜻을 이웃에게 전했다.

동참자들은 자비와 평화와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는 봉축법요식에서 지난해 창단한 부림 합창단의 축하무대를 마련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단원들은 이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찬불가를 교도들에게 음성 공양했다.

부산·경남의 최대 사찰인 정각사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정각사 마당에는 이번 제등 행열에 참가한

장엄들이 전시되었다. 일층 강당에서는 총지종과 정각사의 역사를 알아보는 사진전이 열렸다.

교도들은 총지종 개종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보면서 지난 시절을 추억했다.

또한 웃놀이, 단주 만들기, 컵들 만들기, 만다라 색칠 등 정각사를 찾은 많은 교도와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통신원=총지사 이인성, 실시사 홍정숙, 만보사 유복근, 운천사 고지현, 이미숙, 박보경, 이진숙 정각사 이상록, 김병구 소장(사진)

##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정사 연임



▲ 서울·경인 교구장 법우 정사

서울·경인교구는 교구회의를 열고 5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교구장에 현 법우 정사를 재선출하기로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교구장에 임명된 법우정사는 “지난 임기동안 부족한 점을 잘 이해해주신 교구 스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초발심의 각오로 교구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재임의 소감을 밝혔다. 법우 정사는 대전 백월사 주교와 충청·전라 교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다.

## 총지사 신정회장 이·취임식 신임회장에 박정희 보살 선출



▲ 총지사 신구회장과 스승님

총지사 신정회는 총회를 열고 신임 신정회장에 박정희 보살을 선출하고, 5월 25일 봉축 법회후 이·취임식을 가졌다. 물러나는 김은숙 회장은 “그동안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신정회를 무리 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스승님들과 교도들께 감사 인사를 하겠다.”

신임 박정희 보살은 “너무도 부족한 저를 총본산 총지사 신정회를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주신 교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임 김은숙 회장님의 공덕이 너무도 커서 그 심분의 일이라도 해낼지 걱정이 앞섭니다.”며 취임의 각오를 밝혔다.

총지사=이인성 통신원

## 네팔 대지진 구호를 위한 총지종 교도 모금 운동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등 각 사원별로 활발히 전개



▲ 네팔 구호현장

총지종 전국 각 사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네팔 대지진 구호기금 모금 운동을 5월 27일 마감했다. 지난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진도 7.7의 강진이 지축을

뒤 흔들었다. 8,000여명의 사망자와 1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대지진으로 많은 불교 문화재와 유적지가 피해를 입었다. 부처님의 고향이자 불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네팔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총지종 스승과 교도는 지심으로 서원했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지회장 신인록)은 5월 25일 정각사 봉축 법요식이 끝난 후, 지회의 정성을 모아 금일봉을 정각사를 통해 통리원으로 전달했다. 또한 총지사를 비롯한 각사원에서도 모금함 설치 등으로 모금한 금액을 통리원에서 일괄 정리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네팔에 전달할 계획이다.

##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경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라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 불교의 선정 39

## 미안마의 사념처 수행

##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sana)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지난호에 이어)

## 호흡의 주시와 관찰만으로도 불과를 이룬다

들숨에 따라 복부가 불로오면, '일어남', 날숨에 따라 복부가 꺼지면, '사라짐'하면서 매 순간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린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야 하며 의도적인 호흡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 호흡을 통하여 복부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수반되어 생겨나는 감각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세밀하고 주의 깊게 일어나는 즉시 바로 알아차리되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복부의 일어남·사라짐에 마음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모든 생각과 몸의 느낌들도 생겨나는 즉시 바로 알아차리고 이것이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호흡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몸의 어느 부분이 가려울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가려움을 주시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머물렀다가 사라지는지를 주시하면서 알아차린다. 통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것을 주시하면서 통증이 일어나고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린다. 그러다가 다시 그러한 현상이 사라지면 호흡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알아차린다.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의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주시와 알아차림에는 좌선과 행선, 와선의 방법이 있다. 행선의 도중에 잠깐 멈추게 되었을 때에도 주시와 알아차림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입선(立禪)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좌선을 하다가 걸으면서 하는 행선을 병행하면 피로도 풀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이다. 행선에서는 걸음을 걷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발이 앞으로 나

아가며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모든 느낌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그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와선은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나기 직전에도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다. 물론 호흡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주시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다가 다시 호흡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에 마음을 기울이며 관찰한다. 아나빠나사띠를 중심으로 하는 위빠사나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좌선과 행선, 와선을 적절히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알아차림의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위빠사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좌와, 기거동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해야만 한다. 단지 앉아있거나 걸어나는 동안에만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위빠사나 수행의 근본목적에 맞게 되는 것이다.

《대념처경》에 의하면 위빠사나 수행의 이익을 다음의 일곱 가지로 들고 있다. (1)번뇌가 제거되어 마음의 청정하게 된다. (2)슬픔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 (3)비탄을 극복할 수 있다. (4)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5)정신적인 고뇌를 극복할 수 있다. (6)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가지의 도(道)와 과(果)를 성취하게 된다. (7)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위빠사나 수행에는 이러한 공덕이 있으므로 일상의 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일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마타이든 위빠사나이든 호흡관찰, 즉 아나빠나사띠가 수행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마타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마음이 가라앉아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의식의 집중에서 오는 망념의 상태를 즐기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



▲ 미얀마 마하시 선센터

대승불교와 밀교의 출현에 의하여 여러 가지 수행법이 개발되었지만

그 근본원리는 모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되었거나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관균등에 의한 참된 지혜의 증득 일상생활이 수행으로 연결되어야

위빠사나를 통해 우리의 심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실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지혜가 깊어지면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밝아져 마음이 만든 허망한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자비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상비비상처정 등을 거쳐 멸진정에까지 이르렀지만 선정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엄연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열반을 증득할 참다운 지혜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당신만의 수행법으로 정진하신 바 마침내 대각을 이루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위빠사나 수행법이기에 때문에 불자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승불교와 밀교의 출현에 의하여 여러 가지

수행법이 개발되었지만 그 근본원리는 모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되었거나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나빠나사띠라는 호흡관찰법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마타를 통하여 번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위빠사나를 통하여 열반에 이르는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마타에서 계속하여 더 깊은 선정에 들 것인가 위빠사나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가는 수행자

자신이 택할 문제이다. 사마타를 통하여 위빠사나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위빠사나의 과정을 통하여 사마타에서 거둘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마타가 먼저인가 위빠사나가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관균등, 지관쌍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번뇌의 제거와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지혜는 이 둘을 함께 닦으며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증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 포항 수인사 자원봉사 실행 단체 「수인회」 포항시 《중앙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孝(효)” 한마당 잔치》 공동주관 어르신 1,000여 명에게 점심 공양 제공



▲ 어르신들을 위한 기타합주 공연



▲ 정성껏 준비한 점심공양을 하는 어르신들



▲ 분주히 음식을 담아내는 수인회 회원들

불교 총지중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 자원 봉사 실행 단체 「수인회(회장 자비심 보살)」는 5월 23일 동빈동 기쁨의 교회 복지관에서 중앙동 자생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 주최하는 《중앙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孝(효)’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 북구 중앙동 어르신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수인회는 자부담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쇠고기 국밥과 후식을 점심 공양으로 제공했다. 특히 지역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

고 수인사 무료급식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개회식에 앞서 위문공연에서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는 통기타 합주에 참가해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기타로 아름다운 연주 실력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들은 평소 취미로 배운 하모니카, 아코디언, 댄스 등을 공연하여 어르신들께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수인회」는 회장 자비심 보살과 박금화 교수(수인사 사찰요리 강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이 이

번 봉사 활동에 참가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공양 준비는 한 번 앉아서 설 틈이 없었다. 모두가 내 부모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다.

요리의 전반을 지도한 박금화 교수는 “보시의 공덕을 쌓는 기회를 주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라 생각합니다.”며 “모두가 부처님의 법연으로 만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수인회

무료공양에 많은 분이 혜택을 보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수인사 주교 안성 정사는 “수인회의 활동으로 총지중의 교화 제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원에 들렀다, 불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발길을 돌리는 불자들이 많았습니다. 특약전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봉안으로 참배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며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찰음식강좌는 기수마다 정원을 초과하는 수강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인회의 새로운 회원이 되고 꾸준히 활동한다면 교화의 길이 열

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며 교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인사는 사찰요리 시존 2로 ‘스님 밥상 차리기’라는 슬로건으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강을 위해서는 한두 달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하는 포항 최고의 인기강좌로 자리를 잡았다. 수인사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종단의 사회복지와도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후원문의: 포항 수인사 (054)247-7613  
포항 수인사-통신원 정미혜, 이미애, 사진 및 정리김종열 기자.



▲ 지역 경로당 회장단과 기념사진



▲ 한마당 잔치에 참석한 많은 어르신들



▲ 자원봉사에 참여한 수인회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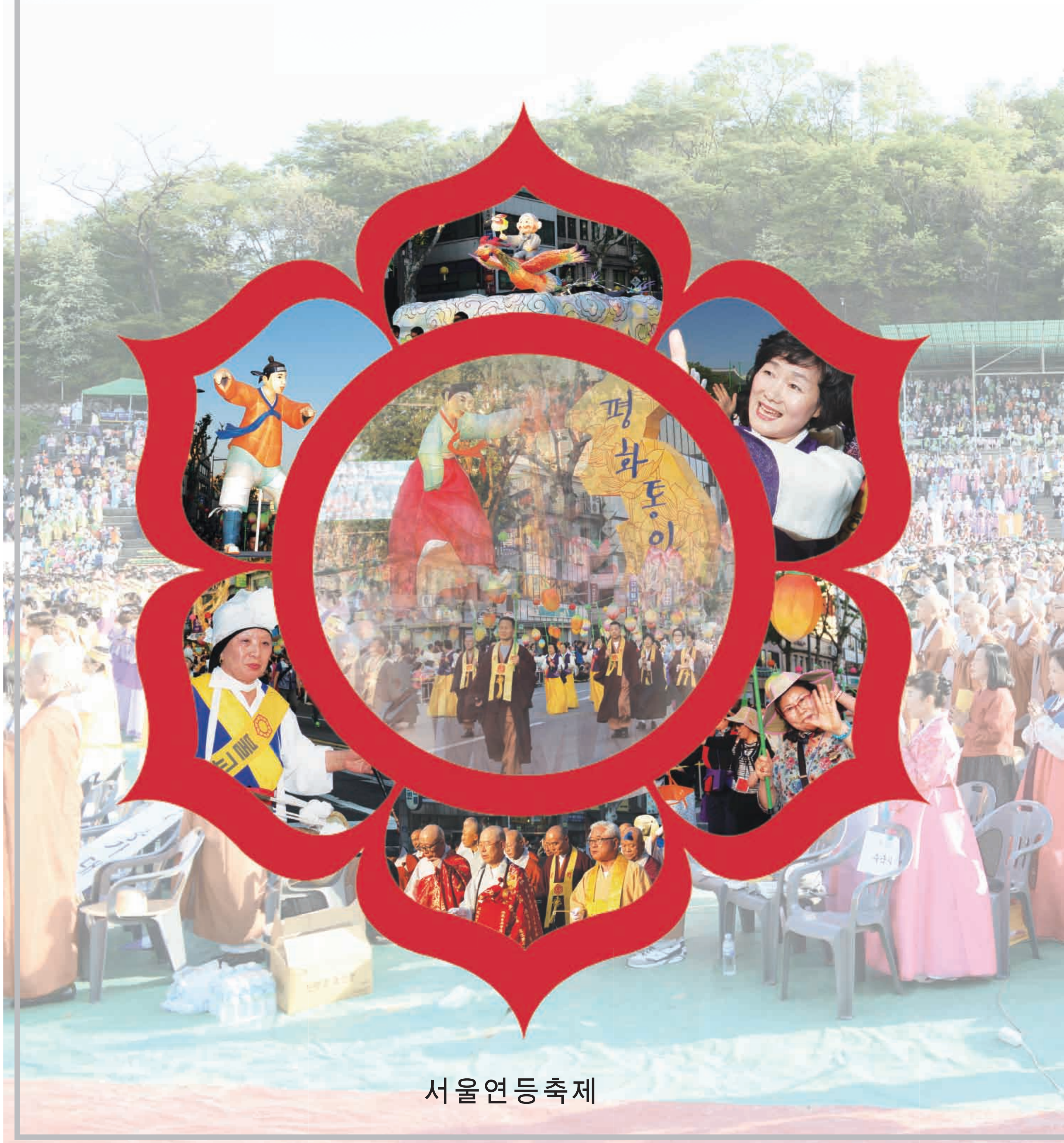
##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원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 불기 2559년 서울



서울연등축제



# · 부산 연등축제



부산연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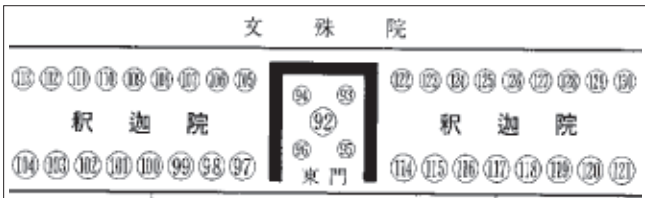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6)**

## 태장계만다라의 여섯 번째 궁실(宮室), 『석가원(釋迦院)』의 제존(諸尊)

지난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다섯 번째 궁실(宮室)인 '지명원(持明院)'에 있는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명원은 명왕들이 모셔진 궁실로서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대지혜(大智慧)의 덕성(德性)을 나타낸다. 즉 지명원은 자비를 나타내는 관음원과 지혜를 나타내는 금강수원에 대하여서 이 둘을 실천적으로 섭수도록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역할을 오대존(五大尊)이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섯 번째의 궁실인 석가원(釋迦院)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석가원은 중대팔엽원과 변지원의 위에 있는 궁실로 태장계만다라에서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가원은 명칭에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존(主尊)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관자재보살과 허공장보살 등의 여러 보살과 석가여래의 십대제자 등 총 39분의 존상들이 모셔져 있다.



▲ 그림1) 태장계만다라의 석가원

|              |             |
|--------------|-------------|
| 92. 석가여래     | 112. 여래회보살  |
| 93. 관자재보살    | 113. 여래사보살  |
| 94. 허공장보살    | 114. 백승개보살  |
| 95. 무능승비     | 115. 승불정    |
| 96. 무능승명왕    | 116. 최승불정   |
| 97. 일체여래보    | 117. 광취불정   |
| 98. 여래호상보살   | 118. 최세불정   |
| 99. 대전륜불정    | 119. 여래설보살  |
| 100. 고불정     | 120. 여래아보살  |
| 101. 무량음성불정  | 121. 여래소보살  |
| 102. 여래비보살   | 122. 여래야보살  |
| 103. 여래민보살   | 123. 운복벽지불  |
| 104. 여래자보살   | 124. 보복벽지불  |
| 105. 여래삭결저   | 125. 구회라    |
| 106. 전단향벽지불  | 126. 아난     |
| 107. 다마라향벽지불 | 127. 가전연    |
| 108. 대목건련    | 128. 우팔리    |
| 109. 수보리     | 129. 지구희라보살 |
| 110. 가섭      | 130. 공양유해보살 |
| 111. 사리불     |             |

이 석가원은 불부(佛部), 연화부(蓮華部), 금강부(金剛部)의 삼부(三部) 가운데 불부(佛部)에 속하며, 석가모니여래가 주존으로 되어 있으므로 석가원(釋迦院)이라 불린다.

밀교에서는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과 석가여래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태장계만다라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석존의 깨달음 그 자체를 중대팔엽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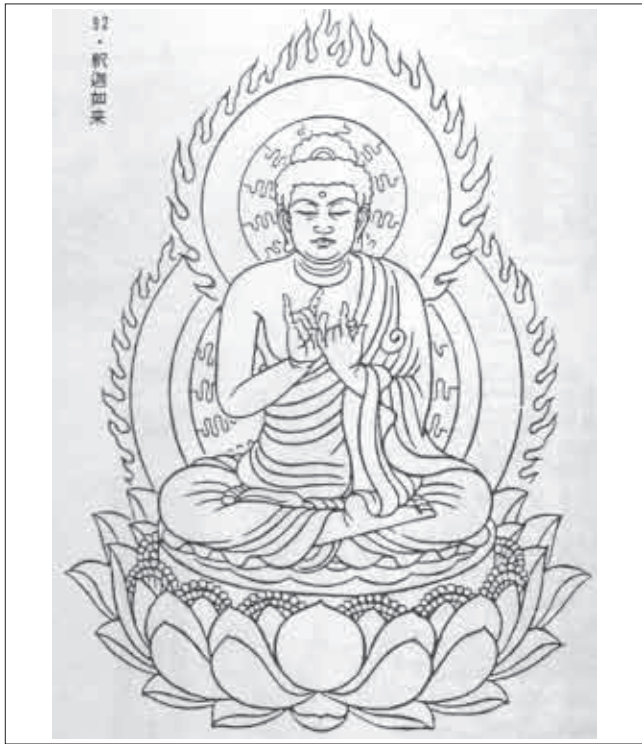
▲ 그림2) 주존(主尊)의 석가여래와 사시존(四侍尊)

중앙에 대일여래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둘째는 그 깨달음을 지혜를 전개시켜나가는 과정으로서 복방의 천고뇌음여래로 나타난 경우이고, 셋째는 별도의 궁실인 석가원에서 주존(主尊)으로 있으면서 중생교화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혜의 존재가 상황에 따라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석가여래의 깨달음이 바로 중대팔엽원의 비로자나부처님으로 나타나고, 비로자나부처님의 별문별덕(別門別德)으로서 지혜의 완성을 의미할 때는 천고뇌음여래로 묘사되고, 중생교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나타낼 때는 석가원의 주존(主尊)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석가원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네 분의 존상이 시봉(侍奉)을 하고 있고, 둘째는 불(佛)의 지혜를 머리 위의 육계(肉髻)로 표현하고 있는 불정존(佛頂尊)의 존상들이 배대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석가여래의 덕성을 나타내는 존상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성문 연각 등의 제존(諸尊)들이 나열해 있다. 이들은 모두 석가여래의 성도(成道)와 전법교화(傳法教化)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석가원의 존상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네 분의 시존(侍尊)은 석가여래의 오른쪽 위에 있는 관자재보살과 왼쪽 위에 있는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능승비(無能勝妃)와 왼쪽 아래에 있는 무능승명왕(無能勝明王)은 석존이 보리수 아래에서 사마(四魔)를 항복시킬 때 그 위력을 나타낸 것이고, 관자재보살과 허공장보살은 삼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와 승보(僧寶)를 나타내며, 중앙의 석존은 불보(佛寶)로 상징된다. 그래서 석가원이 불부(佛部)에 속한다. 이러한 구성은 깨달음, 지혜가 삼보(三寶)라는 틀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의 불정존(佛頂尊)은 중앙 석가여래의 아래측에서



▲ 그림3) 석가여래의 존상

좌우의 안쪽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불정(佛頂)이란 부처의 지혜를 부처의 정수리로 나타난 것으로 32상 가운데 육계를 말하며, 여기에 존격(尊格)을 부여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불정존(佛頂尊)이다. 팔정존(八頂尊)이 좌우로 모셔져 있으며, 이 가운데 오불정존(五佛頂尊)은 석존의 오지(五智)를 나타내고 나머지 삼불정존(三佛頂尊)은 그러한 지혜를 증득함은 물론이고 일체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팔불정존(八佛頂尊)에 의하여 중생은 불(佛)의 법(法)에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는 석가 세존의 덕성을 나타내는 존상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자비희사(慈悲喜捨) 등의 열 빛의 존상들이며, 중앙 석가여래의 좌우의 위 아래 가운데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보살들은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고 인도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네 번째는 십대제자를 비롯하여 열 두 분의 존상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네 분의 연각(緣覺)과 여덟 분의 성문(聲聞)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법이 현실세계에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자 현실세계에 나투신 석가모니여래를 주존으로 하고 있는 석가원은 총지종의 본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자비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삼고 있고 그러한 덕성을 지닌 불(佛)이 석가여래이므로 이 석가원의 좌우 석주(石柱)를 총지종의 본존(本尊) 문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참조

그러므로 총지종의 본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석가모니불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오로지 중생제도를 교화방편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앙의 석가여래는 석가원의 주존이며 황색신(黃色身)으로



▲ 그림4) 관자재보살의 존상

적색의(赤色衣)를 착용하고 그림3)과 같이 설법인(說法印)을 맺고 있다. 이 설법인을 달리 전법륜인(轉法輪印)이라고도 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직접 법을 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고뇌음여래라고도 하며 동체(同體)로 보고 있다. 천고뇌음여래는 일체의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을 상징하지만, 석가여래는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서 중생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법을 설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법륜(法輪)은 전법(傳法)을 의미하고 붉은 색이 적의(赤衣)는 자비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홍가사(紅袈裟)를 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석가여래의 오른쪽 위에 있는 존상은 관자재보살이다. 중대팔엽원에 있는 관자재보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은 중생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중대팔엽원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좌정을 하고 있는 대신 그림4)와 같이 석가원에서는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오른 손에 불자(拂子)를 들고 있고 서 있는데, 불자(拂子)는 불진(拂塵)이라고도 하며, 원래 먼지를 털거나 파리나 모기 등을 내쫓는 데 쓰였던 도구였으나 밀교에서는 번뇌를 쫓는 법구(法具)로 쓰였다. 또한 그 의미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시자(侍子)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석가여래를 대신하여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자비로써 이를 구제하여 깨달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관자재보살을 위시하여 석가원에 등장하는 제존(諸尊)은 모두 석가모니부처님의 시자(侍子)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써 섭수하고 일체중생을 설법으로 제도하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불자(佛子) 모두가 이 석가원의 권속일지도 모른다.

(다음호에서는 '허공장원의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 『보릿고개』

우리 말 중에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다. 지난가를 추수한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도 않은 5·6월에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조나 일제 강점기에는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들이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소작료, 빚과 이자, 세금과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남은 곡식으로 겨울을 넘기고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산천의 초근목피로 연명하거나 유랑민이 되어 떠도는 사람도 있었다. 보릿고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이를 연례적으로 겪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1910년대에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일제는 농민들의 토지를 탈취하였다. 지배의 편의와 수탈을 위해 농촌의 계급구조를 지주와 소작농으로 양극화시켰다. 전체적으로 약 80%에 이르렀던 일제강점기의 소작농은 평균 5할을 훨씬 넘는 소작료 외에도 지조(地租) 및 각종 공과금, 용수로 및 수리 조합비, 토지공사 및 수선비, 마름의 보수, 지주와 마름에의 접대비 및 증여 물품 등을 제하고 나면 전체생산물의 약 24~26%밖에 얻을 수 없었다. 이때 혹독한 수탈을 참아가며 소작농에 안주하거나 결인의 무리를 이루어 유랑하거나, 아니면 만주나 시베리아로 떠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양상이었다. 이처럼 극심한 약탈과 10년

동안 흉년이 겹쳐 일찍이 없던 보릿고개의 참상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8·15광복을 맞게 되었다. 1945년의 광복은 우리 농민을 천 년의 질곡에서 해방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토를 농민에게’라는 농민의식이 집약되어 드디어 1949년 6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법이 제정되어 농민이 ‘제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비운을 맞은 데다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났고, 전후의 수복 또한 부진하여 보릿고개는 실로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1963년 제3 공화국수립 후, 공업국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미국 등에서 식량을 대량 수입하여 양곡 부족을 해결하였다.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버 등 벼 품종 개량과 비료·농약의 공급확대 등으로 식량 증산에 힘써 식량의 자급자족을 도모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보릿고개도 서서히 사라져 갔다. 지금은 보릿고개는 60대 이상 세대의 추억으로

얘기되고 있다. 쌀은 남아돌고 오히려 벼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론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의 소비가 감소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식량자급의 목표는 달성했으나 여전히 끼니 걱정을 하는 빈곤한 사람들이 우리주위에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년, 소녀 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우 등 많은 사람이 배고픔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론 정부와 많은 복지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생계비와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정도의 지원은 아직도 먼 길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 무료급식소인 파고다 공원 뒤편 원각사는 한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1994년부터 22년째 이곳을 운영해 온 보리 스님(72)이 노환과 재정난으로 무료 급식이 3월 2일 중단됐다. 원각사 급식소는 사대문 안에서 유일하게 연중무휴로 문을 열어 노숙인과 노인들이 언제나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다행히 원경 스님(성울 성북구 삼곡암 주지)과 강위동 원각복지회 후원회장, 자원봉사자들의 뜻을 모아 4월 1일 다시 급식을 시작했다. 매일 150~2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재료비, 장소 임대료 등을 포함한 운영비가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든다.

원경 스님은 “이곳에 의지해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면 그분들은 하루 한 끼의 연명 줄마저 끊어지는 것입니다.”라며 소중한 중생들과의 인연을 하루하루 이어 나가겠다는 서원을 했다. 불교 총지종 포항 수인사에서도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자원봉사 실행 단체인 「수인회」는 회원들의 보시금과 교도들의 도움으로 매월 마지막 일요일 점심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본보 186호 3면 참조) 그 시작은 수인사에서 사찰요리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금화 보살’이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자원봉사 실행 단체 「수인회」가 결성되면서부터다. 지난가을에는 김장 김치를 소외된 이웃들 50가구에 전달했다. 더 구체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토론을 통해 복지관이 쉬는 일요일에 무료급식 봉사를 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각자가 마련할 수 있는 요리는 집에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성의껏 음식을 준비했다. 이런 노력으로 5월 23일 포항에서 중앙동 자생단체협의회와 불교총지종 포항 수인사 주최,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구)을 비롯한 관계기관 단체장들도 동참한 이번 행사는 약 1,00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져 마음도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수인회」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꾸준히 무료급식 사업과 소외계층 돕기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물질은 풍부한 시대이다. 가까운 마트만 가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족한 시대에도 보릿고개의 배고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다. 나만 배부르고 따뜻한 방에 편히 잔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왕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이유도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랑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종단 창종 초기에는 《절랑고》라는 나무 상자가 서원마다 있었다. 내가 먹는 쌀을 끼니마다 한 손가락을 모아 저성일에 사원 《절랑고》에 넣어, 모든 교도가 같이 나누고자 했다. 이 방편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법계의 진리를 명료하게 풀어준다. 이제 불지라면 나의 몫에서 조금씩 나누는 습관을 기르자. 그리고 나누다는 생각마저 없이 나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보시이자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의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총지종보 편집장 김종열



## 욕심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사뭇국(중인도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진여(陳如)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석존께 부처가 될 수 있는 첫째 단계에 대하여 여쭙어보자. 석존께서 이 물음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불도를 수행하는데 대 광명을 얻어서 일찍 아라한(阿羅漢)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진여는 즉시 일어서서 합장하고 석존을 향하였다. 이러한 진여의 모습을 보게 된 석존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가?”하고 물으셨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쭙어 볼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여가 여쭙었다.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그대가 만족 할 만큼 자세히 대답해 주리라.”며 석존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심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진여가 “세존이시여 경에는 번뇌의 한 가지인 사랑과 부라나(富羅那)는 생사유전의 근원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어떤 것이고, 또 부라나는 어떤 이유로 생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질문을 하였다. 그대는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었는 것이다. 참으로 가룩한 일이다. 그대의 질문의 답은 이러하다.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 하지만 사랑에는 욕욕(欲慾), 색애(色愛), 무색애(無色愛)의 세 가지와 다시 유애(有愛), 이유애(離有愛), 법애(法愛)의 세 가지가 있다. 욕애의 욕은 방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종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며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즐거움을 맛보기는 하지만 욕심은 예를 들면 불이 물건을 태우듯이 맹렬히 활동을 개시한다. 그 때문에 십선(十善)을 버리고 십악업(十惡業)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십악업을 만듦으로 해서 지옥, 아귀, 축생계에 떨어지거나 불쌍한 야차(夜叉)로 태어난다. 이와 같은 악과(惡)의 공통 세계에 살면서 큰 고통을 받게 되어도 참회(懺悔)하는 마음도 없이 착한 일을 하려는 생각조차 안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런 사람의 탐욕을 끊기 위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풀어서 욕심을 책(責)한다. 사람이 이 책망을 듣고 모든 욕망은 큰 불갈고, 칼 갈고, 도적 갈고, 달구어진 쇠덩어리 갈고, 독사 갈고, 나찰(羅刹) 갈고, 부처야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自覺)하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 올바른 가르침을 찾아서 불심을 일으킨다면 이런 사람들

은 임종시 온갖 번뇌를 끊고 삼악도에서 벗어나서 사후에는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어 제불의 공덕심을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진여야! 이욕은 색욕과 촉욕과 악욕과 미의욕의 네가지 욕심으로 구분된다. 이 네 가지 욕심 중에서 색욕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을 미치고 홀리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는 미인이 다. 그 남자는 미남이다.] 하고 용모의 아름다움과 못생김, 피부의 색깔, 몸매 등에 애착하는 것을 색탐(色貪) 또는 애욕(愛慾)이라 하는 것이다. 이 애욕이 점점 커지면 단념하기란 매우 어려워져서 그 때문에 모든 선근이 소멸되어 양식(良識)을 잃고 몸, 입, 마음의 삼업(三業)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애욕에 빠져들어 많은 죄를 짓게 되어 마침내는 삼악도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무서운 애욕에서 벗어나려면 여자란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는 동시에 여색에 매혹됨이 없이 여자의 육체를 염두에 두지 말

고 모두가 백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도 색욕을 단념하기 어렵다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에 가볼 것이다. 죽은 사람의 새파랗은 몸통이의 부풀음, 썩은피, 고름은 흐르고 구더기는 들끓고 새나 짐승이 서로 다투며 시체를 뜯어먹는 광경을 보고 다시 해골 바가지와 흰 뼈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참혹한 정경을 보라, 이러한 인간 최후의 참상을 본다면 아마도 누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이것이 남자, 이것은 여자라고 그 용모나 몸체에 애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낮이나 밤에도 늘 이 생각을 해서 눈을 떴을 때나 잠았을때나 항상 이 광경을 똑똑히 머리에 그 사람은 능히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진여야! 이 가르침을 스스로 잘 지키고 실천할 것이며 또 사람들 에게도 전파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라라.”고 설하셨다. 이에 진여는 다시 한번 합장하고 “고맙습니다. 탐욕심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세존의 가르침대로 불퇴전의 수행을 하겠습니다.” 석존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도 모든 죄악과 번뇌와 혼탁은 모두 탐심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불도를 정진하게 되었다.

=대방등대집경제37=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중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비로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길 32-0 (봉선사)  
시대: 조선시대

사나삼신불(毘盧舍那三身佛)과 권속을 그린 괘불도로, 상부의 중앙에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향우측에 보신(報身) 노사나불, 향좌측에 화신(化身) 석가불, 하단 좌우로는 6구의 보살과 범천 및 제석천, 10대 제자, 하단 중앙에는 주악천인과 용왕, 용녀 등을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신불과 권속들을 함께 그렸지만 언뜻 보면 삼신불 중심의 구도로 연상될 만큼 화면 상단의 삼신불을 큼직하게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삼신불 중심의 구성은 이 괘불도를 비롯하여 학림사 괘불도(1774년 중수) 및 원통암 괘불도(1806년) 등 18세기 중후반 경의 서울·경기지역의 삼신불 괘불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 봉선사 괘불도에서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여래형으로 묘사한 것은 학림사 괘불도와 동일하며, 봉선사 괘불도에 도화원

(都書員)인 각총(覺總)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있는 칠혜(七惠)가 18세기 전반에 학림사 괘불도를 조성하였으며, 1774년 학림사 괘불도의 중수화원인 처정(處澄)이 1758년에 각총과 함께 신록사 삼장보살도(1758년)를 제작했던 것에서 두 작품 간의 도상적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괘불도는 1735년 상공 이상애(李性愛)가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1669~1735년)의 명복을 빌며 제작한 것이다.

많은 담채의 황색과 청색, 양록색, 녹색, 하늘색 등 밝고 화사한 색이 굵고 대담하면서도 능숙한 묵선으로 묘사된 인물들의 움직임과 옷자락의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 힘찬 동세 등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왕실발원 불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불타편 551p-5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13. 백불수(白佛手) 진언



옴 바나미니 바야바제 모하야 아아 모하니 사바하  
만약 신상의 악한 장애와 곤란을 없애려 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 금화보살 배섯 맛간장

###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감삼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으로서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을 인식하여 불교사상 및 정신문화를 전달·보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방송과 현대 미디어 발전 상황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방송(BBS)의 현안 해결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을 BBS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 자격

- ①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 ②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 ③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력이 있는 분
- ④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 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 (사진/ 상봉사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 ②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 ③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④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

### • 제출(응모) 기간

2015년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 (12일 우편소인 유효)

### • 제출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환 210)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디포빌딩 15층

### • 면담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 참고사항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사회에서 1명 선임할(BBS정관 제5조 5항),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02-719-2606





# 책과 예술: 책의 모든 것

## ‘2015 서울국제도서전’ 한용운 <님의 침묵> 초판본 만나다

2015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출판! 광복 70년을 읽고 미래 100년을 쓰다’를 슬로건을 걸고 열리는 이번 국제도서전은 1세대 한국 출판계의 업적 기리는 특별전이 마련된다. 책과 철학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국제도서전에 흠뻑 빠져볼까?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전 ‘다시 찾은 우리말, 우리책, 세계가 읽는 우리책’은 특별 섹션과 시대별 섹션으로 구성된다.

특별 섹션은 1945년 해방공간에서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출판물과 사진자료를 전시하는 ‘광복, 그리고 첫 책들’, 한글을 지켜낸 인물들의 논저, 한글학회 관련 자료, 국어학 자료 등을 전시하는 ‘우리말을 지켜낸 책들’ 등 2개의 코너로 나뉜다. 시대별 섹션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별 대표적인 출판물과 각국 언어로 출간된 세계가 읽는 우리책을 전시한다.

‘광복, 그리고 첫 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섹션의 전시물로는 1948년 정음사에서 발행한 운동주 시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초판본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초판본, 이육사, 정지용, 청록파(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시집과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조선동포에게 고함> 등 해방 직후에 발행된 첫 한글도서 초판본 150여 권을 선정했다.

유신회는 1904년 8월 20일 일진회로 개명하고, 황실존중과 국가기초 공고,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 정부의 정치개선 실시, 군정 재정의 정리 등을 취지로 내세우고 활동했다.

세계일주의 꿈을 접은 만해 스님은 일본의 신문물을 견학하고,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다.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방문해 격려한 스님은 이로 인해 나라 없는 백성의 통환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조선불교의 중흥운동을 새롭게 진작 시키고자 임제종 운동을 시작한 만해 스님은 한일 불교동맹 조약을 분쇄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와중에도 1912년 <한문독본>, 1914년 <불교대전>, 1917년 <정선강의채근담>을 차례로 내놓으며 민족 계몽운동에도 앞장을 섰다.

1918년 <유심>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서울 계동 43번지에 위치해있던 유심사는 우국지사들이 모이는 민족의 사랑방이며, 독립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해 스님이 유명해진 <님의 침묵> 때문만은

그때 읽기 전에 의외로 생각한 것은 승려인 작가가 한시도 아니고 순 조선문(朝鮮文)인 시집을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크게 놀라지 아니하지 못하였으니, 대개 그 시는 일찍이 조선어로 지어진 시 중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중략... 읽은 지 수년이 지난 때이지만 항상 마음이 미치지 못하여 한마디 찬사를 나니 드릴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아름다운 한글 운문의 세계를 펼쳤던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마련된다.

‘우리말을 지켜낸 책들’이라는 주제의 섹션에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의 한글연구 서적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어학 자료가 포함됐다.

시대별 섹션에는 50년대 큰 화제를 모았던 정비석 작가의 <자유부인>, 중학생 종합잡지 <학원> 창간호, 60년대 최인훈 작가의 <광장>,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 1970년대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 1980년대 김홍식 작가의 <인간시장>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초판본 1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 작가의 <토지>,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비롯한 작품들도 전시된다.



▲ 만해선사 진영

출판시장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동화 일러스트 작가인 페이비언 네그린(Fabian Negrin) 원화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페이비언 네그린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멕시코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미술을 공부했고, 이탈리아에서 어린이 책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작가 9인의 책’에서는 꾸베 씨 시리즈로 인기 있는 프랑수아 로로르, 영어덜트 미스터리 작품으로

수 있는 작품들을 써왔다.

2000년에 출간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 하나로 양계장을 나온 암탉 ‘윽씩’이 아기 오리를 극진히 보살피며 제 목숨을 족제비에게 내주기까지의 삶과 죽음을 그린 동화다. 국내에선 13년 동안 159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2011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문판 출간 한 달 만에 영국 대형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문화 장벽을 벗어난 올랐다. 100년 전통의 서점인 ‘포일즈’ 7개 매장 중 런던 워털루점의 3월 30일 판매 집계에 영문판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가 1위에 오른 것. 영국 서점에서 한국 작가 작품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2011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사상 한국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폴란드, 미국,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전 세계 25개국으로 판권을 수출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 서울국제 도서전은 예술이자 지성의 보고를 한자리에 펼쳐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올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에 서울국제도서전이 개최됨에 따라 우리말과 우리책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 님의 침묵 초판

이번에 전시되는 <님의 침묵> 초판본은 192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한 만해 스님의 첫 시집이다. 만해 스님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격동의 근대를 살아갔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뇌하던 끝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했다. 스승 김연국의 도움으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과 <영환지략>을 읽고 세계정세와 서양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세계일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지만 일진회 회원으로 오인을 받아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

일진회는 1904년 8월 18일 구 독립협회 관련자 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신회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아니다. 기미년 삼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만해 스님은 33인을 대표해 만세삼창을 선창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불교대중화 운동에도 앞장을 섰던 만해 스님은 부처님정신의 체현, 합리적인 중정 확립, 대중 불교 실현이라는 3대강령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겼다. 일제의 조선 사찰령 반대운동 등도 펼쳤다.

1926년 우리 시문학 상상에 불명의 고전인 사랑의 증도가(證道歌) <님의 침묵>을 남겼다. 1929년 동아일보에 이광수의 서평이 실린다.

“<님의 침묵>은 수년 전에 발행된 한용운 선사의 시집이다. 나는 발행 당시 한권을 기증받았는데,

2015년 서울국제도서전의 특별행사는 크게 국내와 국제부문으로 분류된다. 국제부문에서는 2015년 해외저자 9인의 책과 주민국 이탈리아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주민국 제도는 매해 한 국가의 출판물들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이다. 올해의 주민국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014 서울국제도서전의 철저포커스 국가로 참여했던 이탈리아이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올해에도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는 주민국관과 부스 내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특별존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국 일러스트전, 작가초청 등 이탈리아의 문화와

유명한 아동작가 하야미네 가오루, 북유럽과 노르웨이 출신의 인기 미스터리 소설 작가인 톰 에켈란 등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작가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 작가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의 동화 작가이자 교수다.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난 황선미 작가는 1995년 단편 <구슬아, 구슬아>로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 중편 <마음에 심는 꽃>으로 농민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삶의 본질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솜씨를 보인 황 작가는 동화와 소설을 넘나들며 어른과 아이 모두가 공감하며 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다”며 “평소에 접하기 힘든 출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통해 광복과 우리말, 우리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등이 후원하는 제21회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6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강지연 구성작가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 관세음보살 예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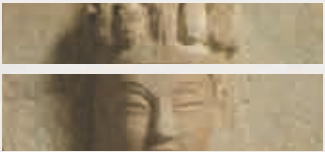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끌고루 건져주시네”



하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총기 44년 불기 2559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하반기 49일 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